봉은사 첫 어린이 영어법회…“부처님 가르침 영어로”

6월 30일 경내 보우당서 100여 명 동참 큰 호응

월 1회 일요일, 초등생 누구나
20년 경력 영어 포교사 지도
어린이 역량 향상 기대 모아

김민재 수습기자

“The Buddha waits for us at Lumbini Park~ The Buddha teaches us wisdom and love.”

(“부처님이 룸비니 공원에서 기다리고 계셔~ 부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을 가르쳐주셨죠.”)

도심 포교의 중심 봉은사에서 초등부 어린이 100여 명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영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6월 30일 경내 보우당에서 첫 어린이 영어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어린이들이 사찰에서 영어를 접하고 불교를 통해 정서·사회적 소양을 길러 글로벌 불교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봉은사가 첫 어린이 영어법회를 봉행하고 글로벌 불교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오전 10시 30분. 어린이 법회 지도법사 법진 스님의 목탁 소리에 맞춰 입재식이 시작됐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삼귀의,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정성스레 예불을 올렸다.

이어 본격적인 영어 법회가 시작됐다. 이날 수업을 맡은 영어 포교사 선생님들은 외국인 템플스테이 경력 20년의 ‘영어 전문가’들이다. 포교사 선생님들은 A부터 Z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불교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영어로 사찰 예절 배우기(합장, 삼배)’를 시작으로, 포교사 선생님은 아이들을 ‘Love’ 팀과 ‘Wisdom’ 팀으로 나눠 팀 대항전을 진행했다. 대항전 종목은 △어린이 불교 방송 ‘Hello! Dharma School’에서 나오는 노래 따라 부르기 △영어로 불교 이야기 읽기 △스토리 OX 퀴즈 △단어를 몸으로 표현하는 ‘Miming game’(마이밍 게임)으로 포교사 선생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구성했다.

영어 포교사 선생님들의 열정 넘치는 진행 덕에 아이들 역시 적극적으로 영어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시간은 어느덧 오전 11시 40분. 아이들은 공양게와 사홍서원을 독송한 뒤 첫 어린이 영어 법회를 즐겁게 회향했다.

이날 법회에서 주지 원명 스님은 포교국장 공일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한국불교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봉은사에서 오늘 어린이 영어 법회가 열린다는 것은 뜻깊은 일”라며 “오늘 법회를 통해 각 어린이의 역량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린이 법회 지도법사 법진 스님은 “어린이들이 그동안 불교영어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다”며 “주지스님 원력으로 시작된 오늘 법회를 통해, 아이들이 불교영어와 가까워지고 더 나아가 실생활에서까지 (불교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오현수(초림초 4) 어린이는 “평소 법회와 다르게 영어로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해서 재밌었다”며 “영어와 불교를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자녀들과 자리를 함께한 학부모들 표정 역시 밝았다. 학부모 정인지 씨(41)는 “아이가 이번 영어 법회를 재밌어해서 절에 더 열심히 다니게 될 것 같다”며 “또 부모라면 아이가 영어를 잘하길 바라기 마련이다.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어린이 영어 법회에 동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늘 첫 발을 내디딘 봉은사 어린이 영어 법회는 월 1회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입재식(삼귀의, 한글반야심경)을 진행한 후, 10시 40분부터 영어 포교사 선생님들과 영어 법회를 40분간 진행한다. 봉은사 어린이 법회는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봉은사 포교사회국(02-3218-4823)으로 하면 된다.

“이승만 정화유시는 불교 자멸 유도책”

교수불자대회서 마성 스님 주장해
이승만 8차례 유시는 정국 전환용
기독 편향策 펴며 불교 분열 유도
“승단정화, 내부 동력으로 이뤄져야”
7월 2~4일 동국대서 대회 진행돼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불교를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내린 유시들이 “승단의 분열과 불교의 자멸을 유도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교묘한 술책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사진〉은 7월 2~4일 서울 동국대 일원에서 열린 한국교수불자대회 시사세션에서 발표한 ‘이승만 정부가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과 극복 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마성 스님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5월 20일을 시작으로 불교계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유시’를 1955년 12월 8일까지 총 8차례 발표했다.

마성 스님은 “이승만의 유시로 한국불교는 유혈 난투의 전쟁터로 변했다. 이로 인해 한국불교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승단분열’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면서 “이러한 이승만의 행위는 기독교 우위의 종교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승만은 “장차 한국을 완전한 예수교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대한민국을 개신교 신앙에 기초해 건국하는 ‘기독교 국가건설론’을 주창했다. 그러다 보니 이승만 정권 내내 개신교에 대한 특혜가 줄을 이었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은 개신교 인구는 해방 직후 2%에서 10년 만에 10%로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마성 스님은 이승만의 정화유시가 정치적·종교적 목적에 기인하다고 봤다. 스님은 선행 연구를 인용해 “8번의 유시가 공교롭게도 이승만이 정치적 국면 전환을 요구 받는 고비 때나, 1인 독재를 위한 정치적 행보가 필요할 때마다 이뤄졌(하춘생)”으며, 이는 “개헌과 종신 집권에 필요한 이승만 자신의 이미지 구축이라는 정치적 복선이 깔려있다(김경집)”라고 역설했다.

종교적 목적에 대해 스님은 “이승만이 불교계 내부의 분규를 조장한 숨은 의도는 승단을 분열시켜 불교 스스로 자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이승만의 정화유시는 불교의 자멸을 유도하는 치밀하게 계획된 교묘한 술책”이라고 힐난했다.

이 같은 승단분열로 인한 후유증은 종파 난립과 삼보정재 망실, 승단 내 폭력 등으로 현재까지 이어졌다는 게 마성 스님의 주장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성 스님은 범불교적 정부 종교편향 및 훼불 대응기구를 설립할 것과 승단정화는 내부 동력으로 행할 것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서울 동국대 일원에서 ‘탈종교 시대의 종교 정체성과 한국불교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7월 2~4일 열린 한국교수불자대회에서는 탈종교시대에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논문 20편이 발표됐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창건 50주년 성과 조명

대행선연구원, 7월 20일 계절발표회

도심포교의 새 장을 연 한마음선원 창건 50주년 성과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7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19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계절발표회에서는 스피치 전문가인 이현정 대표(이현정 커뮤니케이션)가 ‘사부대중의 불교언어개발을 통한 전법활동’을, 이성수 불교신문 기자(동국대 겸임교수)는 ‘한마음선원 50주년 성과와 한국불교에 끼친 영향’을 각각 발표한다. 이현정 대표는 출가수행자의 설법과 재가자의 포교의 핵심은 언어에 있음을 살피고 시대에 맞는 스피치커뮤니케이션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성수 기자는 1972년 5월 대한불교회관으로 출발한 한마음선원의 지난 50년의 성과와 한국불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논평자로는 김은영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 교수, 김두식 동국대 대우교수 최원섭·오진형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참여한다. 2023년부터 시작한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에서는 강릉지원 혜인 스님이 강릉지원 도량 현황과 불사 과정을 소개한다. 신중일 기자

제39회 불이상에 이필원 교수·홍성란 포교사

제39회 불이상(不二賞) 수상자로 이필원 동국대 WISE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 부교수와 홍성란 조계종 국제전법단 포교사가 선정됐다.

불이회(不二會)는 “제39회 불이상 수상자로 연구분야에 이필원 교수와 실천분야에 홍성란 포교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2000만원이 수여된다.

이필원 교수는 학문적 성과의 대중화를 위해 다수의 저서와 번역서를 발간하는 등 불교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홍성란 포교사는 국제전법단 상임포교사로 북한이탈주민 포교 및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한 공적을 각각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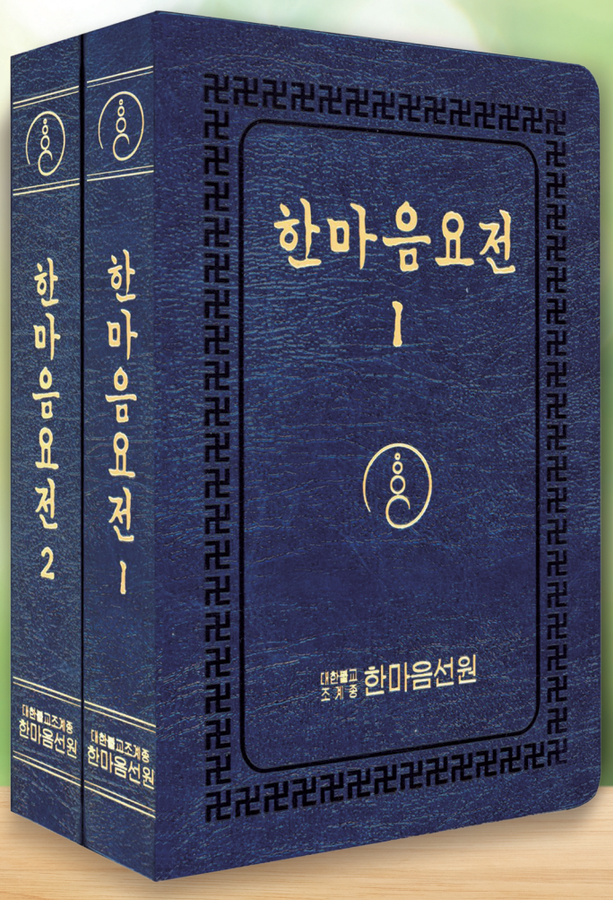

이필원


홍성란

이필원 교수는 청주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인도철학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어 일본 유지대(佛教大)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인생이 묻고 붓다가 답하다〉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이자랑, 이필원 공저)〉이 문화관광부 세종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홍성란 포교사는 통일부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포교 및 종교 활동과 정착 상담에 기여했다.

신중일 기자



큰글씨 한마음요전
장경의 숲을 곧바로 질러가는 대행선사 가르침의 요체
내가 세상에 나고서 세상은 벌어졌다.
나를 빼놓고 무엇을 이 세상이라 하며 무엇을 진리라 하며 가르침이라 하겠는가
그러므로 나의 참모습, 진짜 자기의 뿌리와 씨를 알아야 한다.
-원리편, 나의 실상 중에서-
30년 최장 스테디셀러 한마음요전을 큰글씨로 출간했습니다.
권당 25000원 펴낸곳 : (재)한마음선원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 100-036-429749 (주)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세요.